



# 그레고리우스 달력 도입 개신교 국가선 크게 저항

그레고리우스 달력은 지구의 자전을 하루, 지구의 공전을 1년으로 삼은 역법규정과 천문학적 관찰상의 차이를 수정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윤년규정을 두어 역법이 제자리를 찾도록 했다.

## 「달력과 권력」

■ 이정모 지음

■ 부·키 간

미시사(微時史)든 통사(通史)든, 정치사든 생활사든 우리는 역사를 접할 때 연도와 날짜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도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 헤겔의 '시대 정신'과 같은 극도로 추상화되고 고도로 관념화된 개념조차도 연도와 날짜에 기반한 역사적 사실이 없었다면 그 탄생조차 의문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연도와 날짜가 올바른 것일까? 생활 속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또 역사적 사실의 기초 자료로 언급되는 연도와 날짜의 문제가 시대적 흐름 자체를 부정할 만큼 전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전제 및 도입부에는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그 단적인 예로써 제시되는 것이 연도의 문제이다. 지금이 과연 21세기의 시작이 맞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은 대단히 설득력 있다. 현대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숭배해 마지 않는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열흘이란 시간이 사라지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은 16세기에 도입되었다. 그런데 그 도입과 함께 나라마다 시차는 있지만 열흘 내외의 시간이 역사에서 사라졌다. 로마의 경우는 1582년 10월 5일 다음날은 10월 14일이 되었다.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레

고리우스 달력 이전에 사용하던 율리우스 달력에는 1년에 11분 42초의 오차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오차는 계속 누적되어 16세기에 들면서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적 춘분에 열흘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그레고리우스 개혁 달력이라고도 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구의 자전을 하루, 지구의 공전을 1년으로 삼은 역법(曆法) 규정과 천문학적 관찰상의 차이를 수정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까다로운 윤년 규정(4년에 하루를 추가하되, 1700년, 1800년과 같이 100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하루를 추가하지 않고, 2000년과 같이 400으로 나누어지는 해에는 원래대로 하루를 추가한다)을 두어 우리의 역법이 제자리를 찾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도입과 함께 사라진 열흘에 있다. 이전의 역법과 비교해 계산해 보면 당시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상의 춘분에는 12.69일의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다. 그런데 열흘만 없애고도 달력상의 춘분과 천문학상의 춘분이 일치하게 됐다.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물론 그와 관련된 가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천문학적 관찰이나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현대의 건강한 상식에 입각해 보면 역사의 신빙성 자체에 의심의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 1593년에서 1718년 사이?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도입 때 열흘을 제한 것으로 보아 당시 생긴 날짜의 오차는 최소 9.51일에서 최대 10.49일이다. 이전의 역법과 비교해 계산한 12.69일과는 최소 2.20일에서 최대 3.18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율리우스 달력의 오차는 1년에 0.00780121일이다. 따라서 대략 282년(2.20 / 0.00780121)에서 407년(3.18 / 0.00780121)의 오차가 역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면 지금은 2000년이 아닌 1593년에서 1718년 사이의 어느 해일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많은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그 많은 종말론의 진위를 아작은 판가름할 때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종말의 해는 아직 최소 2백년, 최대 4백년 정도 남은 셈이기 때문이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도 신앙의 문제 내지는 설교상의 비유라고 도외시하기도 어렵게 된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최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달력이 이런 다소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하는 학구적 과학적 논의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곤 했다. 그레고리우스 달력의 도입 과정이 그렇다. 이 달력은 도입 후 카톨릭 국가들에 보급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다. 개신교도들을 중심으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의 주도로 도입된 새 달력을 비난하는 온갖 종류의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는 가난한 농부의 인생에서 열흘을 훔쳐간 데 대한 분노는 물론 언제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진 떠돌이 일꾼들의 한탄과 “교황은 최후 심판날이 곧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달력을 고쳤다. 그는 새로운 달력으로 그리스도를 헛갈리게 하고 있다. 이제 그리스도는 언제 최후의 심판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되었으며, 이로써 교황은

간악한 행위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교황의 새로운 달력에 대한 두 마이센 농부의 짧은 대담, 1584년 독일)는 다소 시사적인 해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다.

### 두개의 달력 사용으로 갈등

사회적으로도 혼선이 거듭됐다. 지역별로 두개의 달력이 동시에 사용되면서 일상 생활은 물론 국제 무역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서로 날짜가 달랐기 때문이다. 카톨릭교도와 개신교도가 섞여서 사는 지역에서는 희한한 일도 종종 벌어졌다. 카톨릭 가정에서는 수난절이 시작되었는데 개신교도들은 사육제를 즐기고 있는가 하면, 개신교도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교도들은 성당에서 기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근 2백년에 걸쳐 계속됐다. 그 동안 달력에 관한 한 사회적 관습과 이데올로기의 힘 앞에서 과학적 합리성은 논외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프랑스혁명 달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즉위에 따라 연호를 붙이는 방식과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따라 햇수를 세는 것 역시 이성적이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모든 도량형을 십진법을 기초로 통일하였는데 시간에는 도입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측계가 2백년 전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정해져야 하는가? 새로운 시민 권력은 완전히 새롭고 현대적인 그리고 과학적 현상과 걸맞은 달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십진법에 입각한 새 달력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7일에 하루씩 늘던 것이 10일에 한번으로 준 데 대한 민중들의 반발에서 대외 교역상의 애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 때문이었다. 그러니 보다 불순한 동지에서 출발한 파소달력(이탈리아 무솔로니가 개인적 위업을 과시하기 위해 제정), 소비에트달력(스탈린이 경제적 목적에서 제정)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진 것 정도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⑤7

李龍水 <한림대 객원교수>